문수성지 오대산, 구도·문화 순례길 열다

월정사 · 오대산공원사무소
치유 · 문화 순례길 조성
특색 담은 2개 코스 구성
월정사 면면 살필 구도길
문화인프라 담아낸 코스도
오대산 스탬프 투어 신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문수성지 강원도 평창 오대산에 불교문화와 역사, 자연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순례길이 조성됐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와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10월 3일부터 오대산 내 불교문화 역사성과 자연생태 탐방을 조화시킨 '치유·문화의 순례길'을 조성하고 스탬프투어를 시행한다.

오대산 순례길은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와 공원 내 대표 사찰인 월정사,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등이 참여하여 오대산을 대표하는 불교문화와 역사·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탐방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대산 순례길을 걷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관점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길은 자연과 조화를 느끼고,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린 심리적 안정을 찾는 방법으로써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오대산 순례길 여권 표지. 순례길 11개 구간 내 설치된 스탬프를 찍어 여행하는 '스탬프 투어'를 위해 마련됐다.

오대산 순례길은 2개 구간으로 조성 운영된다. 제1구간은 옛 구도자들이 천년을 걸었던 '오대산 치유 순례길'로 천년고찰 월정사와 상원사,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돼 불교에서 신성시하는 적멸보궁, 오대산의 주봉인 비로봉, 오대산 이름의 유래중 하나인 오대암자를 연결한 구간이다.

제2구간은 역사를 만나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오대산 문화 체험길'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조선왕조실록·의궤 원본이 전시되고 있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국보급 불교문화유산을 관람할 수 있는 월정사 성보박물관, 역사적으로 한강의 시원지로 불리는 우통수에 대한 기록을 만날 수 있는 한강시원지체험관, 한국자생종만으로 조성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순례길 문화 확산을 위해 '오대산 순례길 여권'을 선착순으로 1인 1개씩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월정사,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현장 신청 및 수령 가능하다.

구간 내 11개소의 방문 지점에 설치된 스탬프를 통해 순례길 여권을 완성해 가면서 탐방객들이 구간 완주 및 방문 장소에 대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다. 오대산 순례길 방문 및 완주시에는 켄싱턴호텔 평창 사우나 할인 등 별도의 방문 혜택과 완주 기념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스탬프투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대산 순례길 홈페이지(https://odaesan.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용우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등산로, 탐방로라는 개념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순례길은 단순한 걷기를 넘어서는 명상·치유·문화향유라는 새로운 탐방 형태에 부합하는 길이 될 것"이라면서, "많은 국민들이 방문하여 오대산 순례길에서 오대산 고유의 역사와 자연,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진흥원, 구상진 18대 이사장 취임

10월 1일 다보원서 취임법회
"인재 양성 불사 추진" 일성



대한불교진흥원 제18대 이사장에 구상진 이사〈사진〉가 취임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0월 1일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제18대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구상진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대적이고 호소력이 깊은 전법 콘텐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인재를 양성 불사를 추진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앞서 진흥원은 7월 14일 제203차 이사회를 열고 제18대 이사장에 구 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사회는 "설립 50주년을 맞아 변화하는 AI 시대에 적극·능동적으로 대응해 '세상에 공헌하는 불교'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신심 깊은 이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수행, 포교, 교학 연구 이젠 AI로"

자홍 스님 'CBETA AI' 활용 시연

불교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스님들이 AI를 수행과 포교, 교학에 접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안내하는 강좌가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 교육부(교육부장 유정 스님)는 9월 30일 서울 동국대 다향관 1층 네오스페이스 정보실습실에서 '전통과 미래의 연결: 수행·교학·AI의 통합적 모색'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찰승가대학과 사찰승가대학원의 상주 교수 스님 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수법을 학습하고 승가교육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동국대 HK 연구단 보조연구원 자홍 스님은 이날 '전통교학의 교수설계와 AI도구의 활용'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ChatGPT5' 'Gemini' 등 최신 주요 AI 기술의 발전 동향부터 국내외 불교학계의 AI기술 개발 및 발전 동향을 소개했다. 특히 최근 불교학 연구자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CBETA AI'와 'Dharmamitra' 활용법을 시연하며 차근차근 설명해 스님들의 이해를 도와 눈길을 끌었다.

박재용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박사는 '교수학습 방법론에서 AI 통합의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생성형 AI 사용시 주의점과 구글 노트북 LM을 활용한 연구활동과 강의안 작성 등을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임은호 기자



달라이라마 구순 기념 행사 참관기

한국 등 11개국 공동주최…1200명 운집

9월 20일, 인도 다람살라서
"인류 안녕 · 행복위해 한자리"


한복과 연등으로 달라이라마를 마중하는 한국 불자.

지난 9월 20일, 인도 히마찰프라데쉬주의 다람살라에서는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이자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불리는 달라이라마의 구순을 기념하는 국제 행사가 봉행됐다. 한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각국이 공동 주최해 총 11개국이 참가한 이 행사는 달라이라마의 구순을 기념하는 캠페인인 '자비의 해(The Year of Compassion)'의 일환으로 봉행됐다.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각국의 조직위는 지난 5월부터 온라인으로 모여 행사를 준비했다. 이후 오프라인 회의 등을 거쳐 행사의 주요 얼개가 만들어졌다. 전통적으로 티베트 불교에서 봉행되는 기도의식이 중심이 되는 장수기원행사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각국의 전통문화 공연이 함께하는 문화행사와 같이 진행됐다.

한국 측은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티베트 사찰인 '삼학설행사(랍숨섀둡링)'이 공동주최자로 올랐으며 이번 행사를 홍보하고 한국 각계의 축전과 행사 참가자를 모집했다. 삼학설행사 주지 남카스님은 "사람이 구순까지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법을 전하는 스승께서 구순을 맞이했다는 것은 더더욱 희유한 일"이라며 이번 행사의 특별함을 설명했다. 국제조직위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등록 인원만 1200여 명, 현장 등록인원까지 약 6000여 명을 참가인원으로 파악했다.

한국에서는 현장 등록인원을 포함 약 110여 명이 참석했다. 교계에서는 조계종 교육아사리회장 금강 스님과 조계총림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이 대표로 참석했다. 특히 금강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친서를 달라이라마께 전달했다. 이외에도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등의 불교계에서 축전을 보냈다. 정계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겸 정각회 명예회장이 학계에서는 한국밀교학회가 구순행사를 기념하는 축전을 보내왔다.

행사장은 남걜사원의 마당으로 정해졌다. 남걜사원은 달라이라마의 개인사찰로, 현재는 망명해 온 남걜사원의 스님들이 다람살라의 한쪽 끝인 하갤리산 위에 재건했다. 달라이라마의 관저와 바로 붙어있어 달라이라마가 주관하는 여러 행사가 자주 열리는 장소다.

행사장은 이틀 전부터 태국에서 온 불자들이 직접 공수해 온 난꽃으로 하나하나 장엄됐다. 꽃장엄을 위한 모든 비용은 한국에서 희사했다. 기둥과 내빈석의 난간은 물론 달라이라마 존자가 앉을 중앙 단상의 좌우에는 흰 난꽃으로 만든 한 쌍의 공작이 아름답게 세워졌다.

행사 당일. 이른 아침 6시부터 남걜사원의 산문 앞이 북적였다. 각국은 물론 현장에서 등록한 이들은 좀 더 달라이라마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자리를 잡겠노라며, 행사 시작인 9시보다 일찍부터 행사장으로 나온 것이다. 한국에서 참석한 많은 불자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달라이라마를 기다렸다. 이윽고 오전 8시 50분, 달라이라마가 관저를 나서 행사장으로 입장했다. 시자 스님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입장하는 달라이라마의 앞으로 싱가폴의 사자춤, 태국의 꽃 공양, 한국의 연등 공양이 길을 앞장서 맞이했다.

달라이라마는 행사에서 자신의 일생을 짧게 회고한 후 "오늘 다람살라에 수많은 세계인들이 저의 9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와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물질적 번영과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닌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을 것"이라며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전했다.

법문에 이어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폴의 순으로 각국의 전통문화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싱가폴의 경우 전문 사자춤 공연단이 직접 싱가폴에서 공수해 온 8마리 사자탈을 쓰고 공연해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각국의 축하를 받은 달라이라마는 거듭 감사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환희심을 감추지 못했다. 태국에서 온 불자는 "내 생에 이런 기쁜 자리에 함께 할 줄 몰랐다. 너무나 환희롭다"고 말했고, 베트남에서 온 불자는 "나에게 달라이라마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시다. 그런 분을 뵙는 일도 희유한다, 구순을 기념하는 자리에 내가 있었단건 큰 자랑거리"라며 기쁨의 눈물을 보였다.

인도 다람살라=박영빈 객원기자